

AIDS홍보를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과 활용전략

姜 信 龜

(京鄉新聞社)

目 次

- | | |
|------------------|----------------|
| 1. 서 론 | 4. 국내홍보현황과 문제점 |
| 2. Safer sex의 효과 | 5. 대 책 |
| 3. 활발한 외국의 보도 | |

I. 서론

「20세기의 페스트」로 불리우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 지난 81년 처음보고된 이후 세계곳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 인류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집계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AIDS환자는 전세계적으로 8만5천여 명에 이르렀고 항체양성자는 수백만명선으로 잡고 있어 이들중 상당수에서 병적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 전염병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지난 85년 주한미국인에서 첫 AIDS환자가 발견된 후 내국인에서도 항체양성자들이 잇달아 발견 모두 18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AIDS는 전 세계곳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특히 안전지대로 평가됐던 동양 각국에서도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 전염병을 막거나 치료하는 뾰족한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AIDS백신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용화가 어려운 형편이고 보면 이 병은 당분간은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선진국들의 연구로 이 병이 성접촉 혈액 주사기등을 통해 전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몽을 통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게된 셈이다. 따라서 인류의 공적인 AIDS의 퇴치에 홍보 내지 사회계몽이 다른 어느분야에 비해 가장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Safer Sex」운동의 효과

이같은 홍보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현

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전한 성」(Safer Sex)운동이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캠페인 결과는 AIDS를 예방 퇴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동성연애자들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결과, 불과 몇년 사이 항체양성자가 수십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 공중보건 담당 조지 루더 포드박사가 미국의회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동성연애자는 지난 82년까지 전체의 21%가 신규감염자로 밝혀졌으나 「안전한 성」운동이 펼쳐진 이후 1년뒤인 83년에는 2%로 10분의 1이 낮아졌으며 86년에는 0.8%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한 성운동 이후」 81~86년 사이에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직장임질(Rectal Gonorrhoea)이 무려 93%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성」운동의 주무기인 콘돔이 성병은 물론 AIDS를 퇴치하는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에 힘입어 AIDS환자발생율도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86년까지 1백26명으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한달에 2~3명 수준으로 격감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 AIDS환자발생이 86년에 피크를 이룬 것은 캠페인 이전에 감염된 항체양성자가 이때에 와서 증상을 나타낸 때문이다.

86년 이후 환자가 격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AIDS를 일으키는 HIV가 전염이 안됐다는 증거이다.

이같은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를 보면 비록 AIDS는 현단계에서는 속수무책인 질병이지만 사회계몽을 통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에 옮긴다면 컨트롤

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예이다.

3. 활발한 외국의 보도

특히 AIDS가 창궐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 서구유럽의 신문, 방송, 잡지들은 거의 매일 AIDS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이 질병이 가져온 사회현상, 또 이 신종전염병에 대한 계몽 기사를 실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지들은 매일 발생하는 AIDS에 관한 기사외에 건강 과학특집에서 「AIDS 연구현황」, 「AIDS정보」 등 특집란을 두어 이병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방송들도 뉴스외에 AIDS특집프로를 통해 AIDS의 정책, 예방법들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BBC는 AIDS예방 특집프로의 하나로 「방송성교육」을 실시, 성도덕문란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AIDS확산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잡지들도 이에 질세라 다투어 AIDS에 관한 정보를 신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간과학지 뉴·사이언티스트지는 과격적으로 「AIDS 모니터」란을 두어 세계각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AIDS에 관한 정보를 실고 있다.

이런 매스컴외에 미 질병관리센터(CDC)는 자체에 AIDS정보센터를 두고 AIDS 정보지를 주단위로 제작 의료기관은 물론 각 매스컴에 공급, 신속한 정보전달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의 AIDS 대책 위원회의에도 민간레벨의 全日本 AIDS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홍보책자 발간 계몽외에 자체 정보센터를 운영, 매스컴에 많은 AIDS정보를 공급해 주고 있다.

4. 국내 홍보현황과 문제점

이렇듯 외국 매스컴의 활발한 보도와 달리 AIDS에 대한 국내보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필자의 종합일간지보도를 소개해 보면 1월 3건, 2월 4건, 3월 7건, 4월 6건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AIDS 보도건수는 1단정도 크기의 기사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 AIDS 정보공급면에서 다른 보도는 한달에 2~3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들 기사의 대부분이 발생에 대한 뉴스이고 AIDS의 정체나 예방을 국민대중에게 알려주는 제도성인 기사는 가뭄에 콩나기인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매스컴에 AIDS홍보도가 낮은 것은 AIDS가 외국에 비해 발생에 있어서 극히 낮아 뉴스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주원인이다. AIDS는 우리 사회에서는 먼 외국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IDS에 관한 정보는 뉴스 밸류면에서는 쳐져 자연 보도기회가 적어지는 것이다.

AIDS홍보를 빈약하게 만드는 두번째 요인은 AIDS에 관한 정보의 왜소성이다. 국내 AIDS 보도를 보면 항체양성자 또는 환자발생뉴스외에는 거의 외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이 질병에 대한 전문가가 그만큼 적고 또 연구가 적게 이루어져 자연 정보발생이 적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스컴은 외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국내 AIDS정보를 적게 하는것은 정보관리의 폐쇄성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현재 AIDS에 관한 국내정보는 보사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정보관리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결국 AIDS 홍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혈우병어린이의 항체양성사건의 경우 정보자체가 통제됨에 따라 한동안 묻혔다가 한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어 공개됐던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혈우병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공중보건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보의 통제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정보가 보다 일찍 보도가 되고 또 제도적인 정보가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혈우병환자를 위협하는 수입혈액제제에 대해 경각심을 지니게 되니 혈우병과 같은 위험그룹에서 이 신종전염병을 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AIDS퇴치와 관련되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전문보도요원의 양성이다. 현재 국내 AIDS보도는 매스컴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사부 출입기자과 과학부에 소속된 기자 크게 이 두개의 채널에 의해 다루어 지고 있다. 보사부 출입기자는 주로 사회부소속으로 일반기자인 경향이 크며 과학부 기자는 대개 의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AIDS보도의 경우 자칫 부정확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공포심만 주어 오히려 AIDS퇴치에 장애요소가 되는 요소가 있다. 특히 AIDS보도는 프라이버시나 인권

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매스컴인력을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없어 보도를 통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AIDS퇴치를 위한 보도는 극히 기술적이고 의학이라는데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AIDS는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사회의 타락에 대한 신이 저주”란 병명이 시사하듯 인간행동이 빛은 사회의학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AIDS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도 MID라는 병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도덕의 확립,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등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할애해야 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AIDS는 청소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5. 대책

가. 종합대책기구의 설립

앞서 지적했듯이 AIDS는 다른 전염병과 달리 비뿔어진 성도덕, 마약등 인간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크게 관여된 전염병이다.

AIDS의 궁극적인 대책은 백신과 근처약의 개발이지만 이 두가지 목표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전염병을 막는데에는 인류 사회의 가치관, 성도덕의 재정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절실한 과제이다. 따라서 AIDS퇴치를 위해서는 보건당국만의 대책기구 보다는 범부처적인 종합대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美國은 AIDS 대통령자문위원회, 일본은 AIDS대책위원회를 종합대책기구로 두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또는 총리산하에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 사회의학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종합대책과 아울러 지적해야 될 점은 AIDS는 법과 같은 강제성만으로는 컨트롤이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AIDS에 방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법체계는 자칫 인권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전염병 확산을 촉진시킬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AIDS 항체양성자의 의무보고 조항만해도 보고보다는 지하에 잠적하게

만들어 이병의 확산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법이 있는한 범죄는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법률이 많았던 독일나치때 범죄가 가장 많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AIDS관리도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사회학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이다.

나. 정보센터의설립

현재 국내 AIDS에 관한 정보공급은 보사부등 방역당국 의학계의 몇 안되는 전문가가 전부이다. 이같은 정보의 희소성이 계속되는 한 AIDS 보도계몽활동이 자연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AIDS의 정체, 전파양식에는 아직도 많은 것이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공급해주는 정보센터가 마련된다면 AIDS홍보도 촉진되고 새로운 지식이 이 전염병관리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공급은 홍보의 부정확성을 감소시켜나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보센터의 정보공급방법은 美國의 CDC와 같이 주간위로 Up-Date 정보지를 제작 배포하는 방법, 정례브리핑을 통해 AIDS에 대한 새로운 지식 현상을 발표하는 방안등이 있다. 또 미국 CDC의 AIDS정보센터는 홍보매체와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어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AIDS홍보는 매체에 맡기는것 이외도 정부가 직접 광고를 통해 알리는 방법,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가 매체를 지원, 캠페인성 홍보계획을 수행하는 것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정보의 공개적인 관리

최근 뇌염통계시비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보건관계통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국민보건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거 장티브스들과 같은 열대성 전염병은 관광산업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공개를 꺼린적이 있었다. 이같은 정보의 폐쇄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전염병은 이미 사시사철 상존해있는 풍토병이 되어버린 것이

다. 쉬쉬하고 있는 사이 이 병원균이 자리를 잡게된 셈이다.

특히 AIDS정보 관리는 인권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큰 만치 자칫 폐쇄적으로 되기 쉽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혈우병 환자 항체양성발생사건만 해도 물론 부모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발생자체를 관제하는 것은 질병관리를 위해 이롭지 못한 일이다. 발생 정보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이미 위험 그룹으로 취급되고 있는 혈우병환자에서 또다른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경우 전국의 혈우병환자들이 수입혈액제에 대해 경각심을 지녀 제2, 제3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18건의 항체양성자 발생뉴스의 경우 최근 당국이 발표한 2~3건을 제외하고는 매스컴에 먼저 보도되고 당국이 후에 확인하는 정보의 타율성을 드러내 보였다.

물론 AIDS는 프라이버시와 깊이 관여되어 있는 만치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으나 발생뉴스 자체만은 공개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여 관광산업이나 올림픽개최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발생정보를 폐쇄적으로 관리했다가는 장티브스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라. 기자의 교육.

AIDS홍보는 정확성이 결여될 경우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전율감을 조성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적어도 AIDS문제를 다루는 매스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간지의 경우 이 문제를 다루는 사회부 과학부 기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외연수시찰의 기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